

동아시아의 『明心寶鑑』 연구*

— 중국·한국·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성해준*

|| 차례 ||

1. 머리말
2. 중국에서의 『명심보감』 확산과정에 관한 검토
3. 한국에서의 『명심보감』 확산과정에 관한 검토
4. 일본에서의 『명심보감』 확산과정에 관한 검토
5. 맺음말

【국문초록】

『명심보감』은 주로 유교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생의 행동 규범으로부터 정치 이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논한 도덕서로서, 중국·조선·일본·베트남 등의 동양뿐만 아니라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지식인들에게도 폭넓게 읽혀진 서적이다.

본 논문은 중국 명대에 성립하여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된 『명심보감』이 중국·한국·일본에 전파된 수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각국에 미친 사상사적 의의를 규명하였다. 특히 중국·조선이 판본의 형태의 원본이 주로 수용된 것에 반해 일본에서는 『명심보감』이 지식인에게 읽혀져 많은 관련 서적이 편찬된 점은 중국·조선과는 다른 일본 독자적인 수용 방법에 기인한 것을 밝혔다. 동시에 『명심보감』은 각국의 고유한 전통문화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모를 보이면서 중국에서 한국·일본의 시대 상황과 정치사회적 여건의 특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독자적으로 수용 정착된 사실을 밝혔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41-A00154)

** 동명정보대학교

1. 머리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양사상의 일면에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야한다는 가르침이 있다. 그렇게 하면 만물이 조화롭고 평화스럽지만 그 뜻을 어기고 「道」에 역행하거나 거스르면 혼란과 재난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발생한 도교·유교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서로 개념을 달리하는 도교와 유교가 조화를 이루며 동양인들의 생활 방식의 한 단면으로 내면 세계에 공존해 왔다. 또 이러한 사상은 중국인이 만든 『명심보감』의 내면 사상이기도하다. 『명심보감』은 도교·유교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생의 철학, 행동의 규범에서 정치이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논한 도덕서로 중국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일반에게도 널리 읽혀졌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에도 널리 전파·수용되어 문학·사상·종교 등의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서적이다.¹⁾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한국·일본·베트남 등의 유교문화권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 동양을 찾은 서양의 선교사들에 의해 1592년 동양의 한문 서적 중에서 최초로 서양어로 번역되었다.²⁾ 스페인·독일·프랑스 등의 서양에서도 동양인의 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서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 『명심보감』은 각국에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각국의 연구는 어디까지나 국지적 연구이고, 다른 나라에 있어서 『명심보감』의 전파와 수용 실태 및 사회에 미친 사상적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한국·중국·일본의 학자들은 『명심보감』이 가진 내면의 심오한 진리에 관한 사상적 연구를 등한시 하였다. 그리하여 『명심보감』을 유·불·도 사상이 혼합된 서민교화

1) 줄고 「『明心寶鑑』の伝播と影響」(『米澤史學』13号, 米澤史學會, 1997年) 참조.

2) Lothar G. Knauth·白石晶子 「明心寶鑑—『明心寶鑑』の流通とイスパニア譯の問題」(多賀秋五郎 編 『近世アジア教育史研究』, 文理書院, 1966년) 853쪽 참조.

를 목적으로 한 단순한 윤리·도덕에 관한 교양서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견해로 인해 『명심보감』이 당시의 권력층 및 지식인들에게 주목 받았던 사실에 대해 전혀 중요시 하고 있지 않다.³⁾ 따라서 앞으로는 동아시아 『명심보감』 자체의 내재적 이해와 그 사상을 추구하는 한편 각국의 수용 실태 및 사상적 역할을 전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를 과제로 하여 본 논문에서 1393년 『명심보감』이 출판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한국·일본의 『명심보감』 연구사를 중심으로 확산과정 및 그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중국에서의 『명심보감』 확산 과정에 관한 검토

중국 『명심보감』 판본은 현재 북경 중앙도서관 및 북경대학교 도서관 등에 보존되어 있다. 또 대만의 중앙도서관에 『명심보감』이 있지만,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에게는 초략된 『명심보감』의 판본이 『태상감응편』과 불교의 내용을 포함해서 『명심보감』이란 이름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또 일본의 내이까쿠(內閣)문고·손께이가쿠(尊經閣)문고 등의 주요도서관 및 연구기관에 많은 종류의 明·淸 판본이 있고 한국에서도 소수의 중국판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⁴⁾ 그러나, 중국의 지식인을 비롯하여 일반인들은 그 존재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중국학자들의 『명심보감』에 관한 견해에는 『명심보감』의 본모

3)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과거 동아시아에서 『명심보감』이 위정자나 지식인에게 널리 수용된 사실에는 주목하지 않고, 단지 명말·청초에 민간에 유행한 선서인 『공과격(功過格)』·『태상감응편』 등과 같은 성격을 가진 「서민교화」 및 「계몽」만이 주요한 역할이었다고 하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4) 뒤의 「3-3. 현존하는 중국 『명심보감』의 판본」에 상세하다.

습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 『명심보감』의 출판연대·작자는 물론 勸善書 연구자 사이에서도 『명심보감』의 전파 실태나 과거 사회에 미친 영향에 있어 왜곡된 부분이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대륙의 王重民씨와 중국 대만의 鄭志明씨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王重民씨⁵⁾는 1393년 范立本에 의해 간행된 『명심보감』의 편자 및 출판연대 등을 미상으로 하고 있다(原書不著撰人姓氏). 또 씨는 내용적인 면에서 도교 및 유교사상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명심보감』이 포함하고 있는 불교사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一爲宋儒語錄, 一爲道家勸善文). 또 『명심보감』을 宋代(960-1279)의 권선서(梓潼·陰鷲·太公之說, 즉 太上感應篇)와 같은 종류의 서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심보감』과 『陰鷲錄』·『태상감응편』 등과의 사상적 차이를 분석하지 않은 결론으로 사료된다.⁶⁾

鄭志明씨⁷⁾는 『명심보감』을 민간 보존의 선서이고 통속서이기 때문에 문인·雅士(칭렵하고 교양이 있는 선비)는 보지 않는 서적이며(民間善書的保存, 因其爲通俗性讀物, 致使文人雅士不觀), 또 史志에는 기록되어

5) 『中國善本書提要』(上海古籍出版社, 1983년)에 王氏가 해제한 『新刊大字明心寶鑑』의 「明刻本」은 일본 츠쿠바(筑波)대학 소장의 「청주본」, 나이카쿠(內閣)문고 소장의 「明版本」·「淸刊本」 등과 같은 계통의 판본으로 생각 된다. 王重民氏는 북경대학도서관 『新刊大字明心寶鑑 二卷』 「明刻本」과 같은 계통(范立本編纂本)의 판본인 세계 각국의 많은 판본 및 중국 국내의 북경도서관에 所藏되어 있는 ① 『新鼎官版証譌大字育蒙明心正文 二卷』, 明汎立本輯, 明刻本, 1冊. ② 『重刊明心寶鑑 二卷』, 明嘉靖 三十二年曹玄刻本, 2冊. ③ 『新刻音釋明心寶鑑正文 二卷』, 明范立本輯, 明末刻本, 1冊. ④ 『新刻校正刪補明心寶鑑』, 明范立本輯 등의 판본에 관한 언급이 없다. 王重民氏는 중국 국내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많은 판본을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6) 『明心寶鑑』과 他의 勸善書와의 사상적 相異의 분석은 拙稿 「日本에서의 『明心寶鑑』과 『太上感應篇』의 思想上的 比較檢討」(『韓國의 哲學』28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編, 2000년 12월)에 상세하다.

7) 『中國善書與宗教』, 臺灣學生書局, 1988년 60쪽에 의함.

있지 않는 서적(史志載籍不錄)으로 간주하고 있다. 鄭志明씨도 중국 대륙의 王重民씨와 마찬가지로 『명심보감』의 편찬자에 대한 언급은 없고, 현재의 「臺灣國立中央圖書館所藏」 베트남판 『명심보감』 및 대만에서 불교 관계 서적으로 편찬된 臺灣版 『명심보감』에 대한 언급도 없다. 王重民씨와 같이 明代(1368-1661) 초, 1393년(明代의 洪武 26년)에 편찬된 『명심보감』을 宋代(960-1279) 편찬의 『태상감응편』과 동시대의 서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상 鄭志明·王重民 양씨의 『명심보감』에 대한 견해는 과거 중국에서의 『명심보감』 수용과정 및 현재의 판본과 중국 이외 다른 나라로의 전파 및 사상적 영향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많은 오해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1) 『명실록』 및 王衡의 校訂本,

張文啓·沈捷頓의 重訂本과 『명심보감』 개론

그러면 실제 중국에서 『명심보감』이 어떤 식으로 전래되었는가를 살펴보면, ① 초판 『명심보감』은 洪武 26(1393)년 2월 16일(新曆 3월 28일), 중국 明代의 「范立本」이라는 사람에게 의하여 간행되었다.⁸⁾

② 明末에는 佛者인 羅祖編의 寶卷類에 『명심보감』의 조문이 인용되어 있다. 또 이 시기에도 『명심보감』은 邪教 대항책의 教化書로서 明정부로부터 주목을 받았다.⁹⁾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먼저, ③ 明代의 晁璠이 『寶文堂書目』에서 가장 먼저 『명심보감』을 著錄하고 있다.¹⁰⁾

8) 1393년 중국에서 간행된 초판은 행방불명 상태다. 현재로서는 편자 출판 및 연대에 관해서는 현존 最古의 판본인 1454년 청주본 「序文」의 말미 내용(「洪武二十六年, 歲在癸酉二月既望, 武林後學范立本序」)에 의거하고 있다. 또 스페인어로 번역한 환코보 판본에도 범립본의 이름이 있다(「武林後學范立本從道謹集」).

9) 줄고 「중국 『明心寶鑑』의 수용과 전파」(동북아시아 문화학회 편 『동북아 문화연구』, 2003년)61쪽 참조

또 『명실록』 1587(萬曆 15)년 10月 辛酉의 條, 福建道御史林文英의 「疎陳五事」에 의하면,¹¹⁾ 학덕이 높고 연로한 유학자에게 명하여 『大誥』 및 『명심보감』 등의 서적을 암송 학습하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하고 邪說을 없애야 함을 주장했다.¹²⁾ 『명심보감』은 『대고』와 더불어 邪教의 대항책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이미 1587(萬曆 15)년 전후에는 명 정부가 이를 중시했으며, 당대의 지식인에 의해 『명심보감』의 새로운 판본이 관판으로 간행되어¹³⁾ 지식인을 중심으로 일반 서민사회에도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많은 영향을 미친 서적이었다.¹⁴⁾

④ 그러면 편자 「范立本」의 뒤를 이어 『명심보감』과 관계를 맺어온 사람은 어떤 계층의 인물이었던가를 후대 이 책을 교정한 교정자인 王衡(1564-1607) 및 重訂者인 張文啓라는 인물만을 보더라도 『명심보감』이 지식인을 중심으로 일반에게 널리 전파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고찰하기로 하자.¹⁵⁾

『명심보감』(日本 內閣文庫에 소장하고 있는 「新鐫京板正譌音釋提頭

10) 陳慶浩 「第1部, 翻譯成西方文字的中國書—『明心寶鑑』」(『中外文學』프랑스科學研究센터) 74쪽 참조.

11) 酒井忠夫 『中國善書의 研究』(弘文堂, 1960년 483쪽) 참조.

또 酒井氏는 同書(36쪽)에서 『大誥』은(「明實錄洪武十八 冬十月 己卯丑朔의 條」에 의함) 元의 사회(정치·윤리)의 부패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명의 정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편찬된 洪武帝의 勅撰書(大誥頌示 洪武, 十八年)로서, 官民에게 널리 읽힌 책이라고 하고 있다.

12) 副以老儒, 責令誦習大誥及明心寶鑑等書, 則人心明而邪說破矣.

13) 官판으로는 『新提頭音釋官版大字明心寶鑑』2卷(明范立本集萬曆辛丑29(1596)年, 書林鄭繼華刊行). 『新鼎官版證譌大字育夢明心正文』2卷(明范立本輯 明刻本, 1冊, 10行27字白口四周單邊無直格) 등이 있음.

14) Lothar G. Knauth · 白石晶子 「明心寶鑑—『明心寶鑑』의 流通とイスパニア譯の問題」(多賀秋五郎 編 『近世アジア教育史研究』, 文理書院 1966년 856쪽)에서 蓮社(白蓮社)는 明初 이래 금지되어온 邪教의 대표적인 것으로 明정부는 그 사상적 대항책으로서 『大誥』이나 『명심보감』 등의 서적을 민간에 보급하려고 하였다.

15) 王衡과 張文啓에 관해서는 前掲 注 白石씨 논문 860쪽 참조.

大字明心寶鑑正文」출판연대 미상)을 교정한 王衡(1564-1607 世宗의 嘉靖43년 -神宗의 万曆 35년)은 明나라의 太倉(江蘇省) 사람이다. 『明史』 218卷의 그의 傳記에 의하면 그는 河南提學副使까지 관의 여러 要職을 거쳤다. 또 그의 父親은 大學士 王錫爵으로 錫爵에게는 동생 鼎爵이 있으며 『明史』 218卷에 그의 傳記가 보이는데 太倉州志 19卷에 「家, 長經世畧, 注意邊務」와 같이 王家는 당시의 명성 높은 학자가문으로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인재를 배출시킨 명문 가문이다. 이러한 배경이 일반에게 널리 전파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⑤ 다음에는 張文啓를 들 수 있다. 일본 尊經閣文庫所藏 「武林張文啓開之甫重訂」의 『明心寶鑑 定本』(卷上下 2冊 출판 연대 미상)의 重訂者·張文啓에 관해서 『杭州府志』 卷 31, 人物(國朝) 方技 「康熙 25(1686)년」의 기록에 의하면, 張文啓는 많은 의학서를 독파한 지식인이었다. 약학과 의학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사회복지 등 의료관계와 관련된 일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지식인이었던 그의 역할에 주목할 수 있다.

⑥ 또 王衡이 校訂하고 張文啓가 重訂한 판본인 「新鐫京板正譌音釋提頭大字明心寶鑑正文」의 서문(「石園全學第沈捷頓首撰」)에서도 『명심보감』의 사상적 의의를 엿볼 수 있다.¹⁶⁾

여기에서는 『명심보감』을 도덕·정치의 근원이 되는 서적, 더 나아가서는 「宇宙의 鴻書」,¹⁷⁾ 즉 우주의 가장 위대한 서적으로까지 평가하고 있다. 특히 『명심보감』을 정치의 근원이 되는 서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근대 이후의 선행연구자들이 평한 『명심보감』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적이었다는

16) 前掲 注 白石논문, 863쪽에 의함. 王衡이 校訂한 明版 『명심보감』과 重訂者 張文啓의 『明心寶鑑 定本』의 일본에 존재하는 판본은 제5대 金澤藩主(前田綱紀, 1643-1724)가 所藏 한 것이다.

17) 寶鑑一書如三辰, 在上亘古嘗懸誠宇宙之鴻書也.

說과는 다른 견해로서 『명심보감』본래의 출판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밝힌 卓見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명심보감』을 우주의 鴻書(寶鑑一書如三辰, 在上亘古嘗懸誠宇宙之鴻書也)로까지 높이 평가한 것을 王衡(名士의 家門)과 張文啓(학자 이자 名醫)와 같은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은 상급 지식인에게 읽혀진 것과 관련시키면 『명심보감』이 당시(明代)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문학 작품에 인용된 『명심보감』의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陳慶浩 교수에 의하면 明의 晁琛 『寶文堂書目』의 「類書類下」에서 가장 먼저 『명심보감』을 著錄하고 있지만 編者인 范立本과 출판 연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명대에 간행된 희극 소설의 교훈적 권위적으로 판단되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명심보감』으로부터 인용되어 있다.¹⁸⁾ 그 인용내용의 대부분은 자연의 순리에 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것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鄭阿財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명심보감』이 당시 유행한 도덕 교육 계몽서 『文詞教林』, 『太公家教』, 『雜抄』(일명 『珠玉抄』 또는 『益智文』, 『隨身寶』), 『眞言要決』 등의 서적에 직접 간접으로 『명심보감』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또 『新集文詞九經鈔』는 100개 이상의 조문을 『명심보감』으로부터 인용하고 있다.

문학작품에서의 인용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일반 사회에서도 이미 『명심보감』이 경전적 지위를 확보했다. 당시의 중국인들이 먼 여정을 떠날 때나 해외에 이주할 때 『명심보감』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재외 중국인 이민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전파되었다. 또 당시 『명심보감』은 중국인의 도덕을 논한 대표적인 서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서양의 선교사들도

18) 陳慶浩, 「第1部, 翻譯成西方文字的中國書—『明心寶鑑』」(『中外文學』 프랑크푸르트科學研究센터) 75쪽 참조.

중국에서의 인기를 반영하여 1592년과 1676년에 스페인어로 번역 출판하였다.

중국에서의 『명심보감』 출판 간행의 역사는 이하와 같다.

2) 중국에서 『명심보감』에 대한 관심과 관련기록

① 1587(万曆 15)년 『明神宗實錄』(10월辛酉의條)에 『명심보감』이 洪武帝의 勅撰書인 『大誥』과 함께 邪教의 대항책으로서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② 1592년 范立本調訂刊行本이 새롭게 『명심보감』의 판본으로서 출판되었다.¹⁹⁾

③ 이 시기에 官版 『新提頭音釋官版大字明心寶鑑』(明, 范立本輯, 1596년 書林鄭繼華刊行)을 비롯한 『新鼎官版證譌大字育蒙明心正文』 등의 판본이 많이 출판되었다.

④ 또 그후 清代로 판단되는 編者미상 『官版無訛明心寶鑑』(勉耘堂梓行)이 있다.

⑤ 1592년 선교사 코보에 이어 1655년 중국 福安에서 최초의 교회를 건설한 도미니크 수도회의 선교사 라바레떼(1616-1689)가 1676년에 『명심보감』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였다.

⑥ 明代의 王衡과 張文啓, 沈捷頓 등의 상급지식인에 의한 새로운 『명심보감』 판본이 출판되었다.

⑦ 清代에도 새로운 『명심보감』 판본(光緒31·1905년, 常州「余樂泉」謹述)이 출판되었다.

이상 중국 『명심보감』은 1393년을 시작으로 官주도하에 출판되었다.

19) 任繼愈 『中國道教史』上海 人民出版社, 1990년에 의함.

3) 중국 『명심보감』 수용과정과 문제점

이상 중국에 있어서 『명심보감』은 前記의 王重民·鄭志明씨의 견해인 송대의 『태상감응편』과 동시에 출판된 권선서, 혹은 출판 연대 및 저자는 불명이며 문인이나 청렴하고 교양이 있는 선비가 보지 않는 통속서(즉 서민 중심의 교양서)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명심보감』은 ① 王衡이나 張文啓와 같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상류층 지식인들이 주목하였던 서적이었다. ② 『명심보감』은 명대 초기에는 정치적·종교적인 면에서 白蓮教²⁰⁾를 비롯한 사교 세력의 대항 서적으로 당시의 황제에게 주목되어 많은 판본이 출판되었다.²¹⁾ ③ 구시대의 타락된 정치의 부패를 회복시켜 명의 정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洪武帝의 命²²⁾에 의해 편찬되어 공적으로 인정받은 양서로서 다수의 판본이 유학적 교양을 지닌 사회적·정치적 지배인이었던 독서가에 의해 간행되어 널리 수용되었다.²³⁾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스페인어 번역본을 낸 선교사 코보는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회에 널리 전파된 『명심보감』에서 중국인의 진정한 마음을 찾고자 하였다.²⁴⁾ 선교사 나바레떼 역시 『명심보감』은 중국인에게 성서와 같은 존재라고 하며 『명심보감』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²⁵⁾

『명심보감』은 다른 많은 중국의 윤리 사상과 같이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취급한 것으로 『명심보감』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평은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종종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④ 이는 이미 沈捷頓이 『新

20) 미륵이 하생하여 지상천국을 만든다고 하는 신앙을 내용으로 하는 종교적 비밀결사.

21) 『新提頭音釋官版大字明心寶鑑』·『新鼎官版證譌大字育夢明心正文』·『官版無訛明心寶鑑』 등.

22) 『명실록』만력 15년, 서력 1587년 10월 「辛酉의條」.

23) 기독교 선교사가 중국인에게 포교하기 위해 『명심보감』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明代末期에는 佛者「羅祖」編의 寶卷類 등에도 『명심보감』이 인용되었다.

24) 前掲, Lothar G. Knauth·白石晶子 논문 874쪽 참조.

25) 前掲, Lothar G. Knauth·白石晶子の 논문 872쪽 참조.

京明心寶鑑』에서 「도덕과 정치의 근원이 되는 요긴한 글」을 모은 우주의 가장 위대한 서적(宇宙之鴻書也)이라고 한 것처럼 당대의 정치·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명심보감』이 독자에게서 멀어진 이유로, 먼저 명말 청초에 학문적 정치적 이유로 인한 유학사상의 정체와 함께 『명심보감』과 같은 유교적 윤리를 중시하는 서적을 대신해서 개인의 영락을 중심으로 한 현세 이익을 강조하는 보다 세속적인 선서(『太上感應篇』·『功過格』 등)가 서민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명심보감』은 그 위치가 점점 희미해져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근대 중국에 있어서 5·4운동, 문화혁명 등, 사회적·정치적 변화에 의한 반전통 사상의 움직임과 함께 유학 경시 및 배척의 영향이 『명심보감』을 사람들로 부터 점점 멀어지게 했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에서의 『명심보감』 확산과정에 관한 검토

한국의 『명심보감』은 1454년 청주본이 간행된 것으로 보아 이미 그 이전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명심보감』이 유학서로서 과거를 보는 자제들에게 한문교육의 기본 교재로, 또 일반인들의 교육기관인 서당에서도 정식 교재로 사용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전파되었다. 이는 권선서 수용상 중국·일본이 『태상감응편』·『음즐록』·『공과격』도 수용하였지만, 조선에서는 중국·일본의 권선서 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명심보감』이 주자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정착하였다.²⁶⁾ 이는

26) 줄고, 「일본에 있어서의 『明心寶鑑』과 『太上感應篇』의 사상상의 비교검토」, 『韓國의 哲學』28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0년 참조.

중국·일본이 주자학과 양명학을 필요에 따라 동등하게 수용하려한 점과는 상이한 면으로 조선에서는 주자학을 중심으로 수용된 것과 동일한 전개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 중국·일본의 『명심보감』이 유교·불교·도교의 내용을 유지한 데 반해, 조선의 「抄略本」은 송유억불 정책의 영향으로 불교사상을 완전히 배제시켰으며, 도교사상도 유교화 하여 순수 유학서로 정착시키려한 특징이 있다.

조선시대의 『명심보감』은 생활 지침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애독되어 일반생활의 도덕의 규범서로 서민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抄略本 『명심보감』은 그 내용이 바뀌면서 널리 전파되었다. 『명심보감』의 내용을 이해·암송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도덕의 기본서로서 역할을 해온 것은 중국·일본 등 다른 『명심보감』 수용국에 비해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한국의 『명심보감』은 한국어 번역본에 해설판을 추가한 서적이 왕성하게 출판을 거듭하였지만 『명심보감』의 독자적인 연구는 다른 유학서적에 비해 그 숫자가 적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논문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① 성균관대학교의 李佑成교수는 『初版原本明心寶鑑』²⁷⁾에서 동해안의 구가에서 발견된 『명심보감』을 소개하고 원본 『명심보감』이 일찍이 조선에서 전파된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또 ② 명월사 주지스님인 申正午씨는 「『명심보감』의 編者에 관하여 -秋適說의 疑問-」²⁸⁾에서 『명심보감』의 선행연구를 인식하지 않은 채 『명심보감』을 중국과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국고유의 서적이라고 논하고 있다. 또 종래의 儒學書라는 說에 대해서 『명심보감』이 불교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7) 동방문화사, 1977년 9월.

28) 東方學會編 『東方學』 제70輯, 1985년 7월.

③ 『명심보감』의 불자 저작설이 있는 반면에 『명심보감』 종래의 유학서설에 반론을 일으킨 논문으로서 김윤수씨의 「『명심보감』에 인용된 景行錄에 대해서」²⁹⁾가 있다. 이 논문에서 김윤수씨는 종래의 『명심보감』의 儒學書·佛敎書說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명심보감』에 인용된 「경행록」(착한 행실을 기록한 중국 宋代의 작자미상의 서적) 및 도교의 내용을 들어 『명심보감』을 道敎書의 일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명심보감』은 유학자를 비롯하여 불교 승려 등의 지식인들에게 두루 읽혀진 서적이지만, 저자가 중국의 范立本이라고 밝혀진 오늘날까지도 거듭 출판되는 한글 번역판 「초략본」에서는 『명심보감』의 저자를 고려시대의 저명한 유학자인 秋適으로 간주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특히 『명심보감』 선행연구의 유교·불교·도교설에 대해 신정오씨는 승려인 서산대사의 『禪家龜鑑』과 『명심보감』 내용이 많은 부분 일치하고 또 불자들의 교양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비추어 『명심보감』을 불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서적이라는 판단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김윤수씨는 『명심보감』에 인용된 「경행록」을 예로 들어 『명심보감』을 도교서적이라는 설을 제시하는데, 이것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지식인 및 서민을 비롯하여 사회 깊숙이 침투한 『명심보감』이 왜 오늘날 그 저자를 고려시대의 秋適이라는 설을 시작으로 내용적인 면에서 유교서적, 불교서적, 혹은 도교 서적이라는 설이 학자에 따라 분분하게 되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 원인은 이미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한국의 『명심보감』은 1454년에 「淸州本」(현재의 충청북도 청주시)이 간행되었지만 임진왜란 이후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청주본의 존재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시대 후기에는 당시의 저명한 유학자들조차도 한국에 있어서 최초의 원본이었던 「청주본」이 존재한

29) 韓國 道敎思想硏究會 編 『道敎思想의 韓國的 展開』 1989년 12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이 사실은 후대에 편찬된 작자 미상의 「抄略本」을 두고 『명심보감』의 원본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용 또한 「청주본」에 있었던 ‘三敎合一사상’에서 불교사상을 완전히 제거한 「抄略本」은 원본에 비해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 판본이 『명심보감』으로서 사회에 널리 퍼졌으나 지금 이 판본은 「抄略本」 원본과 구별되고 있다.

또 조선시대에는 「抄略本」이 오랫동안 지식인을 비롯하여 민중에도 널리 퍼졌으나 조선시대 말기에는 중국 『명심보감』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았던 유학자 사이에서 『명심보감』의 조선 저작설이 지배적이었다. 저자 역시 우리나라의 秋適³⁰⁾으로 간주하였다.³¹⁾

한국에서의 『명심보감』 판본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에서 『명심보감』에 대한 관심과 관련기록

① 먼저, 1454년 11월 1일 조선의 청주에서 『명심보감』이 간행되었다. 이 판본은 즉 「淸州本」 『명심보감』으로 현존 최고의 판본이며, 한국(제17

30) 조선시대 후기에는 저자 또한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추적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설이 유력하였다. 그러나 조선 유학자에 의한 秋適 편찬說에 대해서 이미 조선총독부의 관료학자였던 마에마코우사쿠(前間恭作 1868-1942) 와 프랑스의 동양학자 쿠란(1865-1925)은 『명심보감』의 편찬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중국 원본을 복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다

31) 성균관 발행 『명심보감』 1995년 185쪽에 의하면, 秋適을 『명심보감』의 편찬자로 명기하고 있는 문헌은 『晦軒實記』(卷5)의 부록인 「東賢號錄」(卷1), 『朝鮮歷代名醫錄』, 『朝鮮名臣錄』(金 錫奎의 露堂 行狀記)에는 추적의 논이라고 했지만 근세의 문헌이다. 「東國文獻考」, 露堂「家傳」, 李(凝窩)源祚와 許(性齊)傳, 「潭陽邑誌」 등에 있으나, 이들 文獻은 고려시대의 기록이 아니라 조선후기의 기록이니 신빙도가 희박하다. 「彙纂麗史名臣傳」, 「麗史提綱忠烈王記」, 「麗朝賢臣錄」, 「海東集號錄」, 「稽古集說」, 「芝峯類說」, 「武陵雜稿」, 「晦軒實記」, 「樸翁稗說」, 權 文海의 「大東韻玉」, 李栗谷의 『明心寶鑑』 「序」와 「跋」에는 秋適이 『明心寶鑑』을 저술했다는 기록이 없다.

편 「尊信篇」 이하가 전부 혹은 일부가 결락 되어있음) 및 일본 筑波대학도서관에 완본이 소장되어 있다.(사본 필자소유)

② 1554(甲寅)년 초간 『고사촬요(攷事撮要)』³²⁾(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031 한 17 ㄱ 및 031 어 57 ㄱ 한, 魚叔權撰)에 『명심보감』, 「清州本」과 함께 「洪城本」(충청남도 홍성)의 존재도 기재되어 있다. 이 「洪城本」은 「清州本」 뒤에 간행된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 출판연대는 미상이다.

③ 『명심보감』이 조선시대에는 15세 정도에 배우는 서적으로 영조 대왕이 『대학』과 『중용』을 60세가 지나서 다시 강론한 것과 같이 정조대왕도 『명심보감』을 왕이 된 후에 반복 강론을 하였다.³³⁾

④ 1564년, 僧侶 休靜(淸虛, 1520-1604)編纂의 『三家(儒家·道家·禪家)龜鑑』(1564년)이 『명심보감』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다.

⑤ 1971년 12월15일(수요일) 『한국일보』의 기사, 「명심보감 木板 발견. 이 판본은 1971년 12월13일 경상북도 달성군 성서면 본리동(구명 仁興洞) 仁興書院 大梁 안에서 발견된 「仁興齋舍本」 『명심보감』의 판본이다. 조선왕조 말기 고종 6(1869)년의 제작으로 編者를 고려시대의 儒臣 秋適(1246-1319)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秋適의 말손인 秋世文이 1869년 다소 改訂하여 跋文을 새롭게 붙여 간행한 것이다.³⁴⁾

32) 조선시대의 사대교린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일반상식 등을 뽑아 엮은 것이다. 1771년 徐命齊가 『攷事新書』로 대폭 개정하기에 까지 12차례에 걸쳐서 간행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신문화연구원)

33) 『정조의 수상록 일득록 연구』(정옥자, 일지사, 2000년 5월 30일)

34) 「仁興齋舍本」에는 조선시대(주로 1860년대의 유학자)의 저명한 학자(당시의 저명한 정치가이기도하고 유학자·교육자임)들의 서문과 발문(序文-①德水李珥1550년. ②許傳1866년. ③李源祚1868년. ④趙基升 ⑤柳壽睦1868년. 跋文-⑥申佐模1887년. ⑦李彙載1887년)이 있다. 한국의 『명심보감』은 판본의 상태로 내용의 加減을 거듭하며 널리 사회에 정착하였다.

2) 한국 『명심보감』 수용 과정과 문제점

중국·일본의 『명심보감』이 유교·불교·도교의 내용을 유지한 데 반해 조선의 「초략본」은 원본 「청주본」으로부터 불교사상을 완전히 배제하고, 도교사상도 유교화해 순수한 유학서로 정착시키려한 것이 특징이다.³⁵⁾ 고로 조선의 「초략본」 『명심보감』은 삼교합일(유교·불교·도교) 사상의 서적을 유교서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내용도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당시 조선의 사회상황에 맞추어 원본 「청주본」의 내용을 拔萃한 「초략본」이 원본소실 후 『명심보감』의 원본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명심보감』이 도덕서로 사회에 널리 수용되는 가운데 조선시대 후기에는 판본의 본문 자체를 삭제하거나 혹은 「增補篇」과 같이 원본 「청주본」에 없는 내용³⁶⁾이 덧붙여진 판본이 오랫동안 『명심보감』의 원본으로 인식되어 왔다.

1992년을 중심으로 물질문명의 병폐와 한때 당시 사회를 경악케 했던 살인마 「지존파」의 극성 등 도덕적 타락을 구시대의 도덕서이며 정신적 지침서였던 『명심보감』을 통해서 극복해보려고 시도하였던 때가 있었다. 그 때 서울의 고려대학교를 비롯하여 몇몇 대학에서는 교수모집에 있어 『명심보감』강의가 가능한자를 지원자 자격에 명기시켰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명심보감』이 오랜 기간 한국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명심보감』의 유교·불교·도교의 각 방향에 주목한 본격적인 사상적 연구는 빈약하다. 금후는 왜 『명심보감』이 조선시대에 있어서 ‘유교의 神髓’라고 일컬어질 만큼 유학서로서 인기를 모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에게 교양서로서 읽혀지고 있는가를 『명심보감』의 본문 사상에

35) 『명심보감』의 유교화에 관해서는 이미 유명종 교수도 지적한바있다. 「路堂 秋適의 『明心寶鑑』抄 『業言』」(『韓國宗教』제 20輯, 원광대학교 종교문제 연구소, 1995년).

36) 증보편(增補篇)의 팔반가(八反歌), 효행편 속편(孝行篇 續篇), 염의편(廉義篇), 권학편(勸學篇)

입각하여 조선의 사상계와 관련지어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 지식인(유학자·불자 등)들의 관련서적에 『명심보감』이 어떻게 인용되었는지 그 자료발굴이 시급한 과제이다.

4. 일본에서의 『명심보감』 확산과정에 관한 검토

근세 일본에서 전기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주로 주자학이 수용됨과 동시에 일본적 유학인 古學이 발생하였다. 후기에는 종래의 주자학·고학·병학과 더불어 국학·양학 등 다양한 학문이 성행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권선서(『명심보감』·『태상감응편』·『공과격』·『음즐록』 등), 즉 권선징악·인과응보 관련서적이 지식인층에서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읽혀졌다.³⁷⁾

에도(江戶)시대, 특히 전기를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지식인(儒學者)들은 권선서를 주자학과 병용하거나 주자학의 일부로서 수용했다. 그 지식인들의 사상 형성과 나아가서는 에도시대 일본인의 사상형성에 큰 역할을 한 대표적인 권선서로서 『명심보감』을 들 수 있다.

일본 『명심보감』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마에다 긴고로(前田金五郎)·타마가케 히로유키(玉懸博之)의 연구가 있다. 먼저 마에다(前田)는 『명심보감』의 조문이 에도시대 전기의 몇몇 지식인의 서적에 인용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³⁸⁾. 또 타마가케(玉懸)는 오제 호안(小瀬甫庵)의 사상이

37) 일본에서의 『明心寶鑑』에 관해서는 줄고 「江戸時代の勸善書『明心寶鑑』の受容と変容」(玉懸博之 編 『日本思想史 - その普遍と特殊』ペリカン社, 1997年)에 상세하다.

38) 前田金五郎, 「仮名草子の 발생과 전개」(日本古典文學大系 『仮名草子集』 解説, 1965년 5월)와 「浮世物語雜考」(『國語國文』 1965년 6월)에서 小瀬甫庵, 林羅山, 淺井了意, 野間三竹이 『명심보감』의 조문을 인용한 것을 지적했다.

『명심보감』에 깊은 영향을 받아 성립한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³⁹⁾. 그렇지만 에도시대의 『명심보감』 수용 및 변용의 전체적 해명은 금후의 과제이다. 그 밖에 후카자와 아키오(深澤秋男)·오가와 다케히코(小川武彦) 양씨의 『명심보감』 관련 연구도 있지만, 양쪽 다 『명심보감』 선행연구 부분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있다⁴⁰⁾. 뿐만 아니라 양씨는 『명심보감』을 중국의 명말에서부터 청초에 걸쳐 성행한 민간에서 유통된 권선징악의 선서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로 인해 『명심보감』의 출판목적이 민중교화라고 하여 문제 점을 남기고 있다.

『명심보감』을 민간 유통의 善書로 파악한 점은 『명심보감』 본래의 사상과 상반되는 견해인 『명심보감』에 내재된 「治政篇」·「繼善篇」·「省心篇」·「正己篇」과 동일한 사상이 위정자에게 적합한⁴¹⁾ 天의 강한 도덕적 요청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상적 내용은 에도시대의 오제 호안(小瀨甫庵)·아사이 료이(淺井了意) 등의 상급 지식인이 주로 받아들였다.⁴²⁾

1) 일본 『명심보감』 전래 경로와 출판문화의 상황

『명심보감』의 일본전래 경로는 무로마치(室町)시대(1394년-1428년)에

39) 玉懸博之「松永尺五의 思想과 小瀨甫庵의 思想 - 彝倫抄와 童蒙先習을 둘러싸고 -」(石田一良·金谷治編『藤原惺窩·林羅山』日本思想大系, 1975년)과「慶長期의 小瀨甫庵의 思想」(石田一良編『日本精神史』 페리간사 1988년)에서 小瀨甫庵의 독자적인 사상상의 달성이 주자학에 더하여 『명심보감』의 사상을 섭취한 것에 의해 성취했다고 논하고 있다.

40) 深澤秋男「『浮世이야기』-付『明心寶鑑』解題」(『近世文學資料類從』假名草子編12, 1974년). 小川武彦, 「『堪忍記』와 『明心寶鑑』, 『堪忍記』 出典上の二 - 中國種の說話를 중심으로 -」(早稻田大學文學部 編, 『近世文學研究와 評論』, 제12호 1976년 6월).

41) 예를 들면 天理에 기본을 둔 政治 방법을 논한 것 등.

42) 또 前述과 같이 중국에서 洪武帝의 勅撰書라고 하는 형태로 많은 官版(『新鼎官版證譌大字育蒙明心正文』·『新提頭音釋官版明心寶鑑』 등)이 간행되어 후에 王衡·張文啓 등의 저명한 지식인이 이 책의 가치를 인식하여 편집하고 고친 것이다.

오산 승려(五山僧)를 통한 중국으로부터의 유입과 아즈치모모야마(安土桃山)시대(1428-1603)의 임진왜란(文祿·慶長の役) 때 조선으로부터 유입의 두 경로가 있다⁴³⁾.

먼저 전자에 관해서 고찰해 보면, 『명심보감』의 일본 전래 배경에는, ① 오산과 중국과의 폭넓은 교류를 들 수가 있다. 江蘇省의 太倉이라는 곳은 『명심보감』 재판본의 대부분이 편찬·간행되었던 장소로 오산승려의 왕래에 의해 다른 서적과 함께 『명심보감』도 일본에 전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⁴⁾ 오산 출신의 승려와 『명심보감』과의 관련은 『禪林句集』 訓解書 引用書一覽에 『명심보감』의 서적명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에서 좀더 명확해진다⁴⁵⁾.

② 다음으로 일본 『명심보감』 전래 배경으로서 임진왜란을 간과할 수 없다.⁴⁶⁾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요토미(豊臣) 정권이 멸망하게 된 계기는 조선 침략이지만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이 일본으로 강제 유입된 후 일본문화 형성에 크게 공헌하게 된다⁴⁷⁾. 『명심보감』에 관한 한국의 黃淳九 교수의

43) Lothar G. Knauth·白石晶子, 「明心寶鑑의 流通과 에스파니아 번역의 問題」, (多賀五郎編『近世 아시아 教育史 研究』文理書院 1960년 865쪽).

44) 西尾賢隆씨의 「室町幕府 外交에 있어서 五山僧」(『日本歴史』吉川弘文館 1993년 2월호)에 의하면 明朝 때에 성립한 弘武 元年(1368년 이 시기 江蘇省의 太倉의 黃渡市 舶司가 설치되었던 것을 볼 때 絶海가 蘇州郊外の 黃渡에 입항했다)을 처음으로 해서, 洪武 5년(1372년 杭州), 洪武 6년(1373년,杭州), 洪武 25년(1392년, 江蘇省) 등에 五山僧이 入明한 기록이 있다.

45) 이에 대해서 오가와 타케히코(小川武彦) 씨는 「『堪忍記』의 出典上の 二 - 中國種の 說話를 중심으로-」(『近世文藝』제12호, 1976년, 1쪽)에서 「貞享戊辰(1688년)의 跋文을 가진『젠린구슈 禪林句集』의 訓解書의 項에 『명심보감』이 언급되어 대중적인 서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46) 일본에서는 「文祿·慶長の役」이라고 함.

47) 임진왜란(文祿·慶長の役)이 일본에 끼친 문화적 공헌에 대해서는 川瀬一馬 『古活字版의 연구』(安田文庫 1937년), 奥野彦六, 『江戸時代の 古版本』(臨川書店 1983년), 前田金五郎 『假名草子集』(日本古典文學大系, 5쪽), 崔官, 『文祿·慶長の役』(講談社 1994년 71쪽) 등의 諸氏의 說을 참조했다.

주장에 의하면『명심보감』의 초기 판본인 「淸州本」과 「洪城本」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이것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⁴⁸⁾. 여기에서 지적한 「淸州本」과 「洪城本」 중에 「淸州本」의 완본은 임진왜란 때 도래한 판본으로 현재 일본 츠크바(筑波)대학 부속도서관에 귀중도서로서 보관되어 있다⁴⁹⁾.

이 판본에 대해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의 브리츠 포스 교수는 「淸州本」이 임진왜란(文祿·慶長の役) 때에 일본에 전래된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⁵⁰⁾. 포스 교수에 의하면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출병 때 본부가 있었던 나고야(名護屋)⁵¹⁾에서 활동한 선교사 코보(Cobo)⁵²⁾의 『명심보감』 스페인어 번역 원고 중에 『명심보감』의 편자는 「淸州本」이라고 하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므로 코보가 접한 판본도 임진왜란 때 도래한 「淸州本」을 서양인이 誤認하여 사람 이름으로 생각하고 편자로 기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명심보감』 판본이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유입되어 위정자·지식인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수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⁵³⁾.

48) 『原本 明心寶鑑』(太學社 2쪽).

49) 이 판본은 임진왜란 때 건너 간 판본으로 고산케(御三家) 즉 오와리(尾張)·기이(紀伊)·미토(水戸)에 분장된 도서 가운데 미토(水戸)에 소장된 도서의 일부로 판단됨.

50) 「『明心寶鑑』에 대하여」(東北大學 『日本文化研究施設編 文化研究所研究報告』 第21集 1985년 9쪽).

51) 九州에 위치한 곳으로 豊臣秀吉의 조선 침략 때 본부가 있었던 장소.

52) 코보는 에스파니아의 트레드지방 콘스에그라(Consuegura) 사람으로 높은 학식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말솜씨 또한 명쾌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많은 사람들은 항상 그의 말을 듣기를 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의감이 강한 그는 당시 공정치 못한 일처리를 한 멕시코 총독을 엄하게 공격하여 결국 총독의 미움으로 최초의 부임지인 멕시코에서 추방당하였다. 추방당한 코보는 1588년에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로서 1565년 이후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으로 그의 활동 무대를 옮겼다.

53) 일본의 『명심보감』의 여러 가지 종류는 他國에서는 그 예가 없지만 이것은 타국의 연

2) 일본에서 『명심보감』에 대한 관심과 관련서적

前記의 무로마치시대 도요 에이초(東陽永朝)의 『禪林句集』에서 『명심보감』을 인용한 것 외에, ① 江戸시대 초기의 승려출신의 유학자,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1561-1619)⁵⁴⁾가 그의 저서 『寸鐵錄』⁵⁵⁾에 ② 幕府의 유학자로서 당시 대표적인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던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⁵⁶⁾은 그의 도덕적 啓蒙書인 『童蒙抄』⁵⁷⁾와 ③ 江戸시대 前期의 醫師, 유학자인 노마 산치쿠(野間三竹 1608-1676)는 『北溪舍毫』⁵⁸⁾에 『명심보감』의 條文을 인용하고 있다.

④ 加賀藩에서도 『명심보감』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 藩士 아사카 큐케이(淺香久敬 1657-1718)의 『徒然草諸抄大成』(1687년 刊行)에 ⑤ 江戸 초기의 유학자·의사⁵⁹⁾로 유명한 오제 호안(小瀬甫庵 1564-1640)의 『明意寶鑑』⁶⁰⁾에 ⑥ 당시 막대한 출판량을 자랑하고 서민의 사상 형성에도 크

구자에게도 그다지 인식되어져 있지 않다. 이 풍부한 종류의 판본은 일본 근세의 지식인에게 많이 읽혀져 사상적인 영향을 주었다.

54) 冷泉 爲純의 아들, 이름은 肅, 播磨출신으로 처음 相國寺의 승려였지만 유학을 독자적으로 체계화해 京學派를 일어켰다. 그 門人으로 林羅山·松永尺五·那波活所·堀杏庵 등의 많은 俊才가 있다.

55) 冷泉府書「寸鐵錄」(『藤原惺窩集』上卷, 思文閣出版 1951년 359쪽)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명심보감』으로부터 인용을 확인했다.

56) 幕府 儒官 林家의 始祖. 名은 忠 혹은 信勝, 法号는 道春, 京都出身. 처음 建仁寺의 승려였지만 일찍부터 주자학 연구를 결심하고, 藤原惺窩의 門人이 되었다.

57) 上下 한권으로 寛文六·1666년, 武林三郎兵衛刊行, 宮城縣立図書館靑柳文庫, 他藏. 또 別名 『訓蒙要言錄』에서 上 中 下 세 권, 文化 9년. 1812년 加賀屋善藏梓, 東北大學 狩野文庫, 他藏.

58) 3권, 元祿五, 1692년 林九兵衛壽梓.

59) 道喜·또는 四郎, 甫庵은 호, 尾張출신 豊臣秀次·堀尾吉晴·前田利常에게 從事했다.

60) 前記의 川瀬一馬 『古活字版의 研究』(15쪽)에 의하면 「甫庵이 일찌기 활자 인쇄에 임한 것은 在來著名 한 사실이었지만 (중략) 甫庵이 多數의 醫書를 出版하고 있는 것은 그가 豊臣秀次の 醫라는 說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또 그가 술선해서 新式의 印刷法을 採用한 것은 關白秀次에 近侍하고 기법을 빨리 熟知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게 기여한 아사이 료이(淺井了意 1612-1691)의 『浮世物語』·『堪忍記』·『可笑記評判』·『鑑草』, ⑦ 가이바라 에키젠(貝原益軒 1630-1714)⁶¹⁾의 『大和俗訓』(寶永五, 1708), 『和俗童子訓』(寶永7, 1710년), ⑧ 寬文元(1661)년 간행의 『假名草子』인 『似我蜂物語』⁶²⁾ 및 ⑨ 국학자·신도가인 미야가와 미치사타(宮川道達 貞享5, 1688년頃 沒)의 『訓蒙要言錄故事』(別名 『訓蒙故事要言』 ⑩ 에도시대 후기의 한학자, 音韻學者로 福山藩의 문학교수를 역임한 藩士 오타 겐사이(太田全齊 1759-1829)⁶³⁾의 『諺苑』에 ⑪ 劇作者·狂歌師로 알려져 있는 오타 난뵈(太田南畝 1749-1823)의 隨筆集에 『명심보감』이라는 이름을 기록한 예가 있다.

⑫ 劇作者·浮世繪師로 알려져 있는 산토 쿄덴(山東京伝 1761-1816)의 『昔話稻妻表紙』에서도 『명심보감』의 조문이 보인다.

임진왜란 때 유입된 활자 인쇄가 간에이(寬永·1624-1643) 이후는 대량 출판에 적합한 整版印刷로 성행했다. 『명심보감』의 「화각본」 刊行과 새롭게 전래된 조선본(초락본)과 중국본(명간본·청간본)이 더해져 『명심보감』의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명심보감』의 「화각본」이 연이어 간행되어진 것은 『명심보감』이 에도시대 중기의 사상에 중요한 서적으로서 정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명심보감』이 일본의 주요 지식인에게 읽혀져 많은 관련 서적이 편

라고 생각한다. 甫庵이 사용한 大型活字에는 조선활자의 樣式이 잘 나타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61) 후쿠오카(福岡) 출신의 에도시대 유학자임. 무카이 겐스이(向井元升)에게 의학을 배워, 주자학을 주로하였으나 양명학도 연구하였다.

62) 작자 미상이지만 내용의 善的 표현으로 禪僧이 작자라고 추측된다. 수필·설화·일상생활의 메모로부터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등의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混在해 있다.

63) 諱는 方, 通稱 八郎, 字는 叔龜, 호는 全齊. 父藤藏은 福山 藩御旗奉福行格.

찬된 것은 중국·조선과는 색다른 일본 독자적인 수용 방법에서 기인한다. 특히,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하야시 라잔(林羅山)·오제 호안(小瀨甫庵) 등 전래 당시 직접 『명심보감』을 이해한 사람은 상당히 높은 교양을 가진 신분층이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명심보감』이 지식인⁶⁴⁾에게 널리 수용되어 다수의 『명심보감』 관련 서적이 편찬된 점을 보면 에도 시대 『명심보감』의 권선 사상이 주자학과 더불어 幕藩體制 이데올로기로서 일본 사회에 다양한 독자층을 가진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일본 『명심보감』의 최초 일본 전래는 무로마치시대에 오산 승려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 즉 임진왜란 때에 조선에서 유입된 『명심보감』과 더불어 에도시대에는 일본 주자학의 융성과 함께 당시의 지식인이 『명심보감』의 條文을 인용한 서적을 편찬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것이 근세 일본에서는 『명심보감』의 「和刻本」으로 새로이 간행되어진 것이다. 에도시대 이후도 『명심보감』의 중국·조선 판본의 전래는 계속되었고 「和刻本」까지 간행된 것은 寬永期 이후 『명심보감』이 보다 많은 독자층을 획득했음을 주지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수많은 『명심보감』 관련 서적을 통해 『명심보감』의 권선 사상이 에도 사회에 중요한 사상적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명심보감』의 수용양상에 있어서 중국·조선에서는 주로 판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전파되었다. 물론 일본에서도 1631년 이후 약 80년간에 걸쳐서 화각본이 거듭해서 간행·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명심보감』은 중국·조선과 같이 판본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명심보감』의 條

64) 이미 중국·조선에서 『명심보감』은 위정자들에게 중요시되어 勅撰書(萬曆15년 明實錄) 혹은 官版의 形態로 간행되어 지식인에게도 넓게 읽혀졌다. 스페인 등에서도 선교사가 가지고 돌아 온 『명심보감』의 판본이 위정자에게 獻上되어 중시되었던 사실이 있다.

文을 인용, 발췌한 서적들이 각각 독자의 사상을 추구하면서 사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일본 근세 전기에서 후기까지의 『명심보감』의 내용을 인용한 여러 종류의 문예서적⁶⁵⁾이 출판·보급되어 당시의 권력층과 지식인들에게 널리 읽혀졌다. 이것은 중국이나 조선과는 다른 일본의 독자적인 『명심보감』의 수용형태라 볼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 『명심보감』의 연구사를 비롯하여 전파와 수용·발전에 관하여 분석하고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며 『명심보감』을 통한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국가에서 나타난 사상적 변화의 일면을 고찰하였다. 『명심보감』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중·일의 『명심보감』 수용상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먼저 중국의 『명심보감』은 홍무제의 칙선서로 주목받아 다양한 판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다량의 官版이 출판되었다. 그 官版이 邪教의 대항책으로 주목된 후 『명심보감』을 직접 이해한 사람들은 王衡, 張文啓와 같이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신분이 높은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官의 주도하에 일반에게 널리 전파되어 여러 계층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명심보감』은 조선시대 유학서로서, 과거를 보는 서생들이 한문의 기본교재로 읽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교육기관인 서당에서도 정식 교재로 사용되는 등 광범위하게 모든 계층에 보급되었다. 또한 권선서 수용에서는 중국과 같이 다양한 판본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중국·일본이 『명심보감』과 더불어 『태상감응편』·『음즐록』·『공과격』을 함께 수용한 것에

65) ① 藤原惺窩, ② 林羅山, ③ 野間三竹, ④ 前田綱紀, ⑤ 小瀬甫庵, ⑥ 淺井了意, ⑦ 貝原益軒, ⑧ 작자미상의『似我蜂物語』, ⑨ 宮川道達, ⑩ 太田全齊, ⑪ 太田南畝, ⑫ 山東京伝 등의 서적.

반해, 조선에서는 『명심보감』이 권선서 차원의 수용에서 그치지 않고 주자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서적으로서 정착되었다. 이는 중국·일본이 주자학과 양명학을 필요에 따라 동등하게 수용한 데 반해 조선에서는 유학을 중심으로 수용된 것과 관계가 있다. 또 중국·일본의 『명심보감』이 유교·불교·도교의 내용을 유지한 데 반해 조선의 「초략본」 『명심보감』은 불교사상을 완전히 배제하고 도교사상도 유교화 하여 유학서로 정립시키려 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조선에서 판본의 형태로 수용된 점과 상반되게 일본에서는 『명심보감』의 「화각본」이 대량 출판되어 지식인들이 『명심보감』의 조문을 인용한 관련서적을 편찬한 사실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일본에서의 『명심보감』이 지식인에게 읽혀져 다양한 관련 서적이 편찬된 것은 중국·조선과 다른 일본의 독자적인 수용 방법에 기인한다. 당시 저명한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하야시 라잔(林羅山)·카이바라 에키켄(貝原益軒) 등의 유학자를 비롯하여 미야카와 미치사타(宮川道達)·오오타 난뵘(太田南畝)·산또 쿄덴(山東京伝) 등의 승려, 국학자, 歌人들에게까지 널리 전파되어 다량의 『명심보감』 관련 서적이 편찬된 것은 에도 시대에 『명심보감』의 권선 사상이 주자학과 더불어 幕藩體制 이데올로기로서 일본 사회에 다양한 독자층을 가진 증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명심보감』은 동아시아 국가에 수용되어 각국문화의 특성에 맞게 정착하였다. 각국의 고유한 전통문화 속에서 『명심보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모를 보이고, 중국·조선·일본의 시대 상황과 정치사회적 여건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수용 정착되어 교육·문화·정치사회의 영역을 이끌어 가는 이념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중국

- 「流落於西葡的中國文獻」(『方豪60 自定稿』, 臺北 臺灣學生書局, 1969년)
方 豪, 『中國天主教史方人物傳』(香港公教真理學會, 1970년)
陳慶浩, 王三慶 編 『越南 漢文小說 叢刊』第1冊(臺灣 學生書局, 1987년)
鄭志明, 『中國善書與宗教』(臺灣學生書局, 1988년)
王重民, 『中國善本書提要』(上海古籍出版社, 1983년)
成海俊, 「日本思想上的明心寶鑑-与中國·朝鮮相關聯」(『近世中日思想交流論』
(世界知識出版社, 2003년))

■ 한국

- 이우성, 「清州版 明心寶鑑에 대하여」(『서지학』 7호, 한국서지학회, 1980년)
법인스님, 「『명심보감』의 저자에 관한 소고」(『한국불교학』 제6집, 한국불교학회,
1981년)
김윤수, 「『명심보감』에 인용된 景行錄에 대해서」(『道敎思想의 韓國的展開』 1989년)
김동환, 「『명심보감』의 書誌的 研究」(『書誌學 研究』 10, 1994년)
송희준, 「『명심보감』의 諸問題」(『啓明漢文學會道』 14, 1999년)
성해준, 「일본에 있어서의 『明心寶鑑』과 『太上感應篇』의 사상상의 비교검토」(『韓
國의 哲學』 28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0년)
_____, 「중국 『明心寶鑑』의 수용과 전파」(『동북아 문화연구』 5, 2003년)

■ 일본

- Lothar G Knauth · 白石晶子, 「『明心寶鑑』의 流通とイスペインア翻譯の問題」(文
理書院, 1960년)
前田金五郎, 「假名草子の發生と展開」(『假名草子集』解説, 1965년)
玉懸博之, 「松永尺五の思想と小瀬甫庵の思想」(日本思想大系 1975년)
Vos, Frists, 「『明心寶鑑』に關して」(『日本文化研究所研究報告』 第21輯, 1985년)
申正午, 「『明心寶鑑』의 編者に關して-秋適說の疑問-」(東方學會編『東方學』 제70

輯, 1985년)

深澤秋男, 「『浮世物語』-付『明心寶鑑』解題」(『近世文學資料類從十二』仮名草子編所收, 1974年)

小川武彦, 「『堪忍記』と『明心寶鑑』」(『近世文芸研究と評論』第12号, 1976年)

成海俊, 「『明心寶鑑』が日本文學に与えた影響」(『日本文學』45号, 日本文學協會, 1996年)

_____, 「『勘忍記』の思想」(『日本思想史研究』34号 東北大學大學院 文學研究科, 2001年)

Abstract

East Asian Studies on MyungSimBoKam

Sung, Hae-Jun

MyungSimBoKam is a book of morality covering general topics from human conduct to political ideology positively adopting confucian philosophy. It has been widely read among Western intellectuals including Spanish as well as those in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Korea, Japan and Vietnam.

This paper discusses the ways how MyungSimBoKam that had been constructed in China's Ming Dynasty was spread and received in different East Asian countries, and also the effect it has made on each country's philosophical thought. It is argued that while MyungSimBoKam was introduced as a woodblock-printed book in China and Korea, it was widely read among Japanese intellectuals and thus lots of related books to it were published in Japan. It is my contention that as far as MyungSimBoKam is concerned, Japanese way of receiving it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in either China or Korea: MyungSimBoKam was differently embraced in each country having been deformed or transformed in its own way depending upon the uniqueness of each country in terms of its tradition, culture, time period and socio-political conditions.

Key Word

Myngshimbogam(明心寶鑑), Hongmu(洪武), Fan Li Pen(范立本), Chujeok(秋適), East Asia(東亞細亞), Confucianism(儒教), Buddhism(佛教) Taoism(道教)